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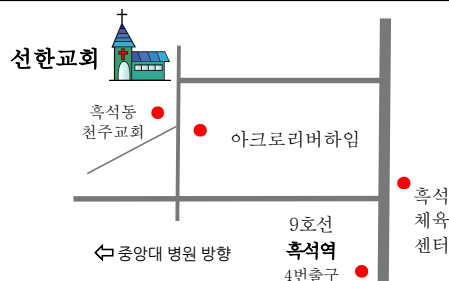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유 아 부	오전 10:00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청 년 부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비 전 위 십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남전도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바 울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마리아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드보라회	오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목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박 회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엿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5번 (시편 8편)		
찬 양 과 경 배	452장 (통일찬송가 505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디모데후서 2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설 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영광은 행복입니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바울회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부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기 도	김점분 권사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말 씬	두 번째 환상: 일곱 대접 심판 2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기 도	인도자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악을 행하는 자들 (시 36편 1~1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점심: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드보라회) 3)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부 서 별 사 역 조 정	2부(11시) 예배 후 청소년부실(지하 2층)에서 부서별 사역조정이 있습니다.	
3. 지 방 회	2월 7일(화) 오전 11시. 가슴뛰는교회(원종선 목사).	
4. 상담실, 새가족실 안 내	4층 가나실은 상담실(상담위원: 오인숙 선교사) 1층 안디옥실은 새가족실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 임 권 사 선 출	지난 주일 사무처리회 결과, 세 분의 신임 권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권사: 김은희, 김정원, 정영옥	
6. 유 초 등 부 겨 울 성 경 학 교	2월 5일, 12일, 19일, 26일 주일(4주) 주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	
7. 청 소 년 부 겨 울 수 련 회	2월 25일(토)~26일(주일) 주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8. 선 한 교 회 장 학 생 선 발	2월 5일(주일)~19일(주일) 자정까지 2주간. * 신청방법 ① 이메일: jgw1025@naver.com ② 서면제출: 장학금 안내 서류 및 신청서는 본당 뒤편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경조장학부 정구원 집사(010-5800-2692).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	--

찬송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통 485)

본문 : 시편 119편 71절

말씀 :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도깨비방망이나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의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속은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성경 속 신앙의 위인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의 학교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중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난을 거쳐 하나님 손에 딱 들어맞는 도구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사용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쁨과 찬양,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사람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고난 덕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이들은 고난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고난은 묶인 걸 풀어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고난은 욕심과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며, 자기 자량에 묶여있는 이들의 속박을 풀어냅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고 눈물로 회개토록 이끌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사람 중심에서 진실된 신앙고백을 끌어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71절)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책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말씀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나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며 깊어지십시오.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목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딤후 2:1~6)

서 론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 본 론
-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 (1)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길 수 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
 -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함. (1절)
 - (3) 세 가지 예
 - ① 고난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3, 4절)
 - ②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5절)
 - ③ 수고하는 농부. (6절)
 - 교훈
 - (1) 나는 복음을 말길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 (2) 복음을 말길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가?
 - (3)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모습은 무엇인가?

결 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이태수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심인섭 집사
오후예배 기도	김점분 권사	김혜선 권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날짜 : 2월 6일
찬양	찬송가 513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본문	사무엘상 8:10~22		
말씀요약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 백성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묵상질문 1	왕의 권한 8:10~18 하나님이 백성에게 왕의 권한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 주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묵상질문 2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심 8:19~22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왕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뜻을 간과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8장 18절 ‘기도’와 ‘응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진정한 왕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관계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그들과 같이 완악한 저를 봅니다. 비좁은 사고와 꽉 막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지체들의 조언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찬양과 기도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64) 예수 우리 왕이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의 키워드를 내세운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점점 모든 세대의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은 20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기와 전자 그리고 인터넷 통신 기반의 기기와 프로그램을 사용해 집 안과 일터에서,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소비 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을 걸고 발급한 카드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제국 시대의 황제들이나 중세 시대의 왕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을 현대의 소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상황입니다.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무제한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일까요? ‘돈’일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세밀해지고 다양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8:10~22
묵상포인트	그리스도인도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서로 물고 뜯으며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생양이 아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왕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분을 닮아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양이 되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왕을 세워 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설명했나요?(10~18절)
적용하기	나와 우리 가족이 감내하는 희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것인가요? 아니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것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보다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따르며 세속적인 기준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일평생 ‘나의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	날짜 : 2월 10일
찬양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본문	사무엘상 10:17~27		
말씀요약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왕을 제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나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합니다.		
목상질문 1	왕을 뽑기 위해 모인 백성 10:17~21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는 모두에게 합리적인가요?		
목상질문 2	사울에 대한 백성의 반응 10:22~27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백성은 각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라던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10장 27절 교회는 세상의 끊임없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불량배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해 “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멸시합니다. 사울은 대응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모든 일에 제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령 제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며 늘 신중하고 절제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날짜 : 2월 7일
찬양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본문	사무엘상 9:1~14		
말씀요약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무척 준수하고 키가 큼니다. 기스가 나귀를 잃고는 사울한테 사환을 데려가 찾으라고 하지만, 도통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물어보라고 제안해,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목상질문 1	사울의 등장 9:1~10 사울의 외모와 백성이 생각하는 왕의 외모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목상질문 2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9:11~14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최근에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9장 13~14절 성경은 사울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버릴 계획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긍정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사울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분순종을 선택해 '부정의 길'로 갔기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정의 길' 처럼 보여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긍정(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에도 저를 향한 선택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음을 깨닫게 하소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겸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매일 Q.T.		왕에 대한 암시, 왕을 세울 준비	날짜 : 2월 8일
찬양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함께		
본문	사무엘상 9:15~27		
말씀요약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그 사람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해 객실 상석에 앉게 하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사울과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목상질문 1	왕이 될 것을 암시해 줌 9:15~21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 주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해 줌 9:22~27 사무엘이 사울을 잔치에 초대해 상석에 앉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신중하게 진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9장 16절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세 번 언급하시며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백성을 돌보기 위함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제일 목적은 명예와 존경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입니다. 지도자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더 섬기려는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작고 연약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기름 부음 반응과 확신을 주는 표징	날짜 : 2월 9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사무엘상 10:1~16		
말씀요약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선지자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 사울이 예언하는데, 이 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는 속담이 생깁니다.		
목상질문 1	기름 부음 받은 사울 10:1~8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목상질문 2	세 가지 표징이 성취됨 10:9~16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0장 7~8절 사명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사울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릴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둘 다 불순종합니다.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소서.		